휴대폰 기본료 사라지고 분리공시제 도입될까

새 정부, 기본료 폐지 · 단통법 개정 추진 예상에통신업게 근심 커져

새 정부가 기본료 폐지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다.

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망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는 게 당시 문재인 캠프 측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구분이 없는 통합 요금제가 보편화해 기본료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통신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요금을 산정할 때 기본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는 월정액 1만1000원을 기본료 폐지 명목으로 일괄 인하할 경우 통신사들이 일제히 적자로 돌아서 기본적인 투자조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만1000원 인하 시 통신사들의 수입 감소액은 지난해 이동통신 가입자 기준 7조9000억원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한 해 7조6000억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충당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기본료를 없애는 대신 통화료를 올리거나 기본료에 종량제를 적용한 패키지 요금제 전환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문 대통령의 또다른 통시 단통법 공약 핵심은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다.

이 제도는 애초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소비자가 더 싸게 휴대전화를 살 기회를 빼앗고, 시장을 음지화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단통법 공약의 또다른 핵심은 분리공시 도입이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분리공시 제도는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재용 기자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중기를 위한 정책 핵심 국정과제 반영을"

중소기업중앙회 임선명 전북지역회장

중소기업계는 제19대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로운 정치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국내외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대통령과 새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과 중소기업이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간다면 오늘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제는 중소기업이다. 한국경제가 내수침체와 저출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당면한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혁신을 통한 성장, 일자리 중심의 성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선거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들을 대부분 반영한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돼 한국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계도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뛰는데 앞장서겠다.

중기청, 호남권 우수 기술창업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이엔이 등 지역 우수업체 40개사 대상 투자 IR · 상담회로 진행

고품질의 물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 ㈜이엔이, 미래 신소재 산업인 금속 그래핀 연료전지를 개발한 ㈜엠파워, 피폭량을 최소화한 치과 수술용 Portable X-ray를 개발한 ㈜알에이치티 등 전북·광주·전남지역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중소기업청은 11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창업·벤처기업과 국내 최고 수준의 벤처캐피탈(VC)이 한자리에 모인 호남권 최대의 '찾아가는 투자 IR'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지역에서 만나기 쉽지 않았던 벤처캐피탈(VC)과 전북·광주·전남지역의 창업·벤처기업 만남을 통해 지역에 벤처 투자와 기술창업의 열기를 확산하는 자리로 지역 우수기업 40개사와 벤처캐피탈(VC) 심사역 20명 등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투자 IR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크게 1부 투자 IR과 2부 투자상담회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벤처캐피탈(VC)의 1차 평가를 통해 엄선된 ㈜이엔이 등 10개 지역 기업들이 벤처캐피탈(VC)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실리콘밸리 투자 IR 형식인 '3분 발표, 3분 질의응답' 으로 자신들의 기술과 장점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벤처캐피탈(VC) 16개사와 사전 매칭된 30개의 기업이 최소 3회, 20분 이상의 1:1 맞춤형 투자상담을 진행된다.

또한, 금융, 법률, 노무, 회계, 기술, 특허, 수출 등 기업을 경영 하면서 겪는 애로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돼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큰 관심을 이끌 전망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우수한 역량을 가진 벤처캐피탈이 전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투자 상담을 실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투자에 목마른 지역 창업·벤처기업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과 저성장의 '뉴노멀시대' 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하루 빨리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인 창업.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대자인병원,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북농협은 10일 대자인병원과 양 기관의 공동발전, 농산물 소비 촉진과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우호증진, 양 기관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증진,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농업인 의료 지원 등 농촌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대자인병원의 전문 인력과 농협의 현장조직을 활용한 상호협력 및 교류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자인병원 이병관 병원장은 "농업. 농촌이 어려운 이 시기에 농촌지역 의료지원 사업을 강화해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전북농협과 함께 손잡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임직원 쌀 팔아주기 운동' 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지역 쌀 연간 약100톤(20kg 5,000포) 및 원예 농산물 공급으로 약 5억원 가량의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 정기총회 · 세미나 열어

전북은행은 10일 오펠리스에서 도내 지역 중소기업 CEO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 '2017년도 정기총회 및 세미나' 를 개최했다.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은 지역내 오피니언리더로 구성된 중소기업체의 최고경영자(CEO)들로 이뤄져 있다.

지난 2003년 클럽을 창립한 이래 13번째를 맞이해 그간 클럽활동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내 나눔행사와 더불어 회원간 친목.화합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비즈니스클럽 회원과 전북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CODE의 송지수 대표를 초청해 'Leading Success by Happiness(행복경영 리더십)'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강연을 해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받았다.

임용택 은행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및 금융환경속에서도 비즈니스클럽 회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아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반체계 및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발전에 힘쓸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농어촌공 전북,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순항'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농업인들의 영농조건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71지구에 대해 현재 공정율은 40%로서, 연말까지 순조롭게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 중 설치된 지 오래되어 노후 되거나 파손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또한 과거 설계기준으로 설치돼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해 집중강우 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강해 재해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노후화로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은 이월 계속지구 22지구, 신규사업 28지구, 올해 준공 21지구로 총 71지구 379억원의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11만1,336ha의 수혜면적에 농업인들의 영농편의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현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